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18일 월요일 음 4월 26일 (3물)

기상정보

흐리고 가끔 비

제주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19℃, 낮 최고 기온은 21~26℃의 분포를 보이겠다.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박무가 낄 것으로 예상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 전	강수 확률	오 후
30%	제 주	80%
60%	성 산	80%
30%	고 산	80%
60%	서귀포	80%

해뜸 05:32 / 해짐 19:30		달뜸 03:18 / 달짐 15:23
물때	만조 08:16 / 20:51	간조 02:16 / 14:48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16/23℃
모레	맑음	15/21℃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매우높음

월드뉴스

카페서 "자리 없다" 거절당한 뉴질랜드 총리

몇분 뒤 자리나자 다시 불러

저신다 아던 총리(왼쪽)와 클라크 게이포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카페를 찾았다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 때문에 입장을 거부당했다가 나중에야 들어갔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1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던 총리는 배우자인 클라크 게이포드와 함께 16일 오전 브런치를 먹기 위해 웰링턴 시내에 있는 '올리브'라는 카페를 찾았다.

그러나 카페 매니저는 손님들 간의 거리를 1m씩 두도록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 때문에 더는 손님을 받을 수 없다며 돌려보냈다가 나중에 자리가 나자 이들을 불렀다.

뉴질랜드는 지난 14일 코로나19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을 허용했으나 손 씻기 등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이나 카페들은 보통 때보다 적은 숫자의 손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던 총리가 카페를 찾은 소식은 트위터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맙소사. 저신다 아던 총리가 올리브에 들어가려다 만원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썼다.

이에 게이포드는 나중에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올리버 카페 주인은 언론의 관심이 곤혹스럽다며 매니저가 총리 부부를 돌려보냈다가 몇분이 지난 뒤 자리가 나자 종업원이 그들을 뒤쫓아가서 모셔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순환보직'의 불편한 진실

현 영 종
부국장 겸 서귀포지사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공무원의 하소연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5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부서가 다섯번 바뀌고, 보직은 벌써 여덟번째라는 내용이었다. 부서별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보직 근무기간은 평균 8개월도 채 안된다는 푸념과 함께다.

지난해에는 청와대에 "'제발 담당자가 바뀌어 모릅니다'는 식의 행정을 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접수됐다. 글을 올린 이는 "마을 저수지에 둘레길이 조성되면서 피해를 입었지만 벌써 세번이나 실무자가 바뀌는 바람에 보상은 커녕 설명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공무원들의 잦은 자리 이동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이다. 각 지자체들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제주라고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2년도 채 안돼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곳으로 전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주자치도의회 등에서 지적이 잇따르지만 여태 고쳐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은 많은 문제를 수반한다. 무엇보다 업무 전문성을 갖출 기회가 사라진다. 업무를 익힐만하면 자리를 옮기니 당연할 수 밖에 없다. 업무 관련 대내외 네트워크도 단절된다.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민원인들 역시 제대로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장기간 근무에 따른 부조리의 소지를 없애고,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회비용 치고는 너무 고약하다.

공무원들의 인식 또한 비슷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17년 4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7년 공직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저해 요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가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을 꼽았다. '공직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는 67.5%가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를 들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결과 보고서를 빌어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전문관' 제도로 순환보직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있다. 보도지원·공직감찰·정보보안·특별사법경찰·비상대비·조선해양산업·투자유치·지출·도시재생·교통영향평가·농지관리·가축 전염병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전문관을 지정, 근무토록 한다. 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 근무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수당과 함께 가산점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근무 기한이 다소 짧아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유력한 대안일 수 밖에 없다. 다른 지자체들 또한 앞서거니 뒷서거니하며 비슷한 제도를 속속 도입·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문가의 힘을 확실히 인지하게 됐다. 이태원 클럽 출입자들로 인해 다소 전열이 흐트러지기는 했지만 누란의 위기에서 우리 사회를 구한 이들 역시 바로 그 전문가 그룹이었다. 성숙한 시민의식, 의료 종사자들의 헌신적 자기 희생과 더불어 전문가 그룹의 견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바로 전문가의 힘이다. 부조리 감시 시스템의 구축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뀐 만큼 전문가 육성 시스템을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이다.

열린마당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수칙

강 성 택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코로나19 사태의 모범적인 방역대응과 의료진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상황이 호전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에 대비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을 실천하는 생활방역 체계를 말한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멸되지 않는 한 재유행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는 만큼 개인방역 수칙을 잘 알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다음과 같다. 제1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감염될 수 있으니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여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제2수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거리를 둔다. 코로나19는 주로 비말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를 2m 이상 두는 경우 대화, 기침 등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제3수칙은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 할 때 옷소매로 가린다.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지켜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제4수칙은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마지막으로 제5수칙은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한다. 코로나19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으니,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개인방역 수칙은 개인 위생관리와 기본적인 거리두기가 필수이며, 일상생활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병행하는 것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껏 힘들게 지켜온 사회적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 방역 주체가 되어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수칙을 준수하자.

안전한 교육환경 함께 만들어 갑시다

문 상 돈
자치경찰단 연동자치지구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온라인 개학으로 여가시간이 많아진 청소년들이 다중이용시설인 PC방, 노래방에 출입시간 외 심야이용을 한다거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 또는 공원에서 흡연하거나 음주 신고가 종종 접수된다.

이를 접수한 자치경찰단 지역경찰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업주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해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을 판매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지하고 가출한 학생으로 보이거나 특이점이 있을 때는 바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비행신고가 잦은 공원과 학교운동장 등에 대해서는 응답순찰을 접수하고 자치경찰관이 도보순찰을 상시 실시해 쾌적하고 밝은 환경이 유지되게 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꺼려지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5년동안 입건된 범죄소년은 총 37만명이다. 이는 연평균 7만4000명이 검거된 것으로 5년간 매일 200명 이상이 검거된 셈이다. 그 중 강력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1만7000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할 정도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의 주요 공범도 만 18세 미성년자다. N번방 가입자 중에는 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 가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범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말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은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학부모는 물론 경찰, 교육청, 자치단체, 유관단체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옳은길로 인도해야 한다. 끝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는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개학에 맞춰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으로 청소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완성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제주도정 소식

2020년 6월30일까지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는 2021년도 FTA기금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및 납부 문의 : 지역 농·감협 또는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감귤진흥과 ☎710-3194

지방자치분권 홍보 영상 UCC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지방자치분권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민들의 관심과 직접 참여 유도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홍보 영상 UCC 공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개요
○ 공모주제 :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 공모기간 : 2020. 5. 1. ~6. 12.
○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편당 4인 이내 참가 가능(팀 출전 시)
○ 공모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자치분권을 홍보 할 수 있는 방법
※ UCC 제안 소재 :
- (말해주세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한 지방자치분권 사례
- (찾아주세요) 우리지역의 자치분권·국제자유도시추진 우수 사례
- (알려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국제자유도시의 의미와 가치
- (제안해주세요) 자치분권의 필요성 등을 기발하게 홍보할 아이디어

2.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등 (도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E-mail 접수 (1인/1팀당 2편 이내)
○ 접수처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1동 1137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강영봉
· E-mail 접수 – tao610@naver.com (연락처: 064-710-4795)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도정소식-새소식 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강영봉 (☏710-4795)

2020년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 공모분야
○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이상 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주소)를 둔 업체로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관광지, 교통(전세버스, 렌트카), 숙박업(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및 농어촌민박업 안전인증 미인증 업체 제외), 여행업(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음식업
○ 신청서 접수기간 : 2020. 5. 18.(월) ~ 5. 29.(화) 18:00까지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기획조사부(064-741-8752~4) (주소)우)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지니스센터 3층(영평동 2170-4)
· 팩스 : 064-742-8865 / E-mail : gosker@daum.net
○ 접수방법 : 내방 및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20.5.29일 18:00 전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064-710-3343) 및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064-741-8752~4)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www.visitjeju.or.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용

제10회 제주 공공디자인 공모전 연장 안내

○ 공모주제: "디자인으로 소통하는 제주 함께 만들어요."
○ 제한조건
1) 대학 및 일반부: 사업비 5억원 미만 추진 가능한 사업
2) 중·고등부: 사업비 제한 없으며 자유롭게 제안
○ 응모자격: 아이디어가 있는 중·고등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
○ 출 품 료: 없음
○ 공모일정
1) 공모 기간 : (변경전) 2020. 2. 26. ~ 6. 5. (변경후) 2020. 2. 26 ~ 9. 11.
2) 접수 기간 : (변경전) 2020. 6. 1. ~ 6. 5. (변경후) 2020. 9. 7. ~ 9. 11.
3) 심사 기간: 응모작품 제출 마감 후 30일 이내
※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팀 ☎ 064-710-3863, FAX 064-710-2749

서귀포시정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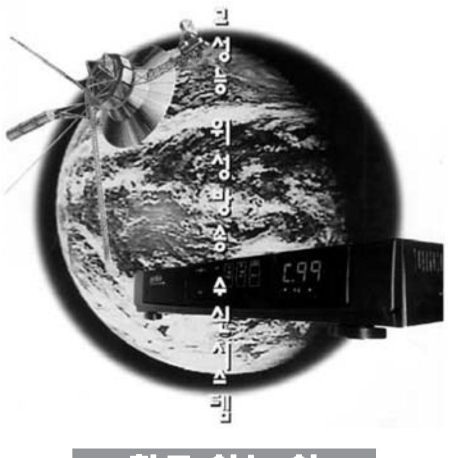
서귀포시평생학습관 6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20. 5. 21(목) ~ 5. 28(목)
○ 모집대상 : 서귀포시민(초등 1학년 ~ 만 18세 이상 성인 남·여)
○ 프로그램 : 떡 만들기 기술반, 가정식 웰빙요리, 미술심리상담사(초급), 요가교실, 생활도자기, 가죽공예 2급 민간자격과정, 캘리그라피, 한국무용, 서예교실 등
○ 접수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https://edu.seogwipo.go.kr/life/index.htm)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과목별 최대 15명 신청으로 제한
○ 수강료 : 계좌이체(교육 수강신청과 동시 입금 원칙)
※계좌번호 : 농협 301-0126-5878-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 접수문의 : 서귀포시평생학습관 (☎ 760-3871~3874, 2262, 2263)

제15기 가족자원봉사단 모집 알림

○ 모집기간 : 2020. 5. 11(월) ~ 5. 29(금)
○ 모집가족 : 총 30가족(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
○ 운영기간 : 2020년 6월~8월
○ 운영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4:00~18:00
○ 운영내용 : 발대식 및 자원봉사 인권봉사활동, 환경보호활동 등
※ 1회 4시간 자원봉사시간 인정 (활동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접수방법 : 이메일(sgpnanum1365@hanmail.net), 팩스(738-0718) 접수
○ 접수 및 문의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 738-0716)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 라 전 설 (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